

# 꼭 안으면 들리는

로르 몽루부 글·그림  
김영신 옮김

※ 이 지도안은 비전비엔피 홈페이지([www.visionbp.co.kr](http://www.visionbp.co.kr)) > 커뮤니티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 구성: 천서초등학교 교사 채봉운



## 관련 단원

3학년 도덕 3. 사랑이 가득한 우리 집      4학년 2학기 국어 4. 이야기 속 세상  
3학년 2학기 국어 9. 작품 속 인물이 되어      5학년 2학기 국어 1. 마음을 나누며 대화해요  
4학년 1학기 국어 1.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5학년 도덕 6. 인권을 존중하며 함께 사는 우리

## 주제어

#장애 #청각장애 #다양성 #용기 #모험 #진정한 소통

## 분 야

문학 > 프랑스 문학

## 대 상

초등 3~4학년

도서소개

《꼭 안으면 들리는》의 주인공 올가는 청각 장애인이다.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올가는 엄마와 아빠, 반려묘 무슈와 마음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런데 일곱 번째로 이사 온 집에서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고, 올가는 무시무시한 비명이 울리는 숲으로 떠난다.

이 책은 장애에 대해 이제껏 들어 보지 못한 질문을 던진다. ‘나한테 없는 것은 무엇일까?’가 아닌, ‘나만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옳은 질문’은 독자들을 더 넓고 다양한 세계로 안내한다. 이 책을 읽은 어린이는 올가의 모험을 함께하며, 다른 이의 세계를 상상하는 힘과 깊이 소통하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읽기 전

출동! 책 탐험대

1. 뒤섞인 글자를 조합하여 온작품읽기를 할 책의 제목 추측해 보세요.

안	면	꼭	리	으	는	들
---	---	---	---	---	---	---

2. 제목과 뒷표지에 있는 소개글을 읽고 책 앞표지 상상하여 그려 보세요.

**포옹으로 듣는 아이, 올가의 특별한 모험!**

이사 온 첫날, 올가는 벽지 뒤에서 작은 문을 발견하고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집에 홀로 남는다. 그런데 숲으로 산책 간 부모님은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고, 수상한 그림 편지가 작은 문에서 삐죽 튀어나오는데...

청각 장애를 가진 올가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부모님을 찾아 뺨고 불길한 숲으로 떠난다.

## 읽기 전 책 표지를 보고 질문에 답하기

3. 책 표지를 보고 떠오르는 단어를 마인드맵으로 나타내 보세요.



4. 책 표지를 보고 질문에 따라 이야기 나눠 보세요.

- 1) 제목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색으로 표현해 보고 이유를 말해 볼까요?
- 2) 표지 속 아이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나요?
- 3) 제목과 표지, 마인드맵으로 떠오른 단어를 활용해 책 내용을 예상해 적어 보세요.


**읽는 중** 책에서 인상적인 부분 6컷 만화로 표현하기

1. 책을 읽고, 인상적인 부분을 6컷 만화로 표현해 보세요.


읽는 중

동화책 속 인물 인터뷰하기

2. 책 속 인물 인터뷰 활동을 위해 질문을 만들고 친구의 대답을 적어 보세요.

◎ 등장인물 : 올가, 고양이 무슈, 올가의 엄마와 아빠, 고블린 플라트  
검은 구렁이에 빠진 여자

◎ 활동방법

1. 그림책 인물이 될 배역 정하기
2. 인터뷰어들은 활동지에 인터뷰이들에게 할 질문을 미리 만들기
3. 서로 역할을 바꿔가며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과정 거치기  
(인터뷰이들은 앞쪽에 마련되어 있는 의자에 앉아서 대답하기)

동화책 속 인물 인터뷰 질문지

( )학년 ( )반 이름 ( )

등장인물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2가지 만들고 인터뷰 활동을 통해 동화책의 내용을 파악해 봅시다.

질문하고 싶은 인물:

질문 1.

등장인물의 대답

질문 2.

등장인물의 대답

읽는 중

올가에게 전하고 싶은 동시 찾기

3. 올가의 상황을 나타낸 글입니다. 아래 글을 읽고, 올가에게 전하고 싶은 동시를 찾아 적고 이유를 써 보세요.

올가가 눈을 떴을 때 밖은 어둑어둑했다. 무슈는 옆에 없었다. 올가는 침대에서 일어나 계단을 내려갔다. 1층은 깜깜했다. 올가는 부엌으로 가 전등 스위치를 켰다. 엄마 아빠가 산책을 가기 전 그 모습 그대로 빈 그릇들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올가는 2층으로 올라가 아빠의 사무실과 엄마의 연습실을 살펴봤다. 아무도 없었다. 올가는 “엄마, 아빠!”하고 부를 수도, 고함을 칠 수도 없었다.

(중략)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올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갑자기 혼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부모님과 함께 산책을 나가지 않은 것이 후회됐다. 배탈 났다고 거짓말한 것이 잘못이었다. 올가는 속상해서 엉엉 울었다.

<동시 적기>

동시를 선택한 이유 :





**읽는 중** 네 컷 그림! 보물이 숨겨진 비밀 장소 찾기

6. 책의 목차 '그림'을 읽은 후, 보물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 주는 네 컷 그림을 그리고, 친구와 그림을 교환해 보물을 찾는 놀이를 해 보세요.

보물을 숨겨 놓은 장소 :


읽은 후

내가 만드는 교육연극 활동 1

1. 《꼭 안으면 들리는》을 연극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감독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등장 인물에 어울리는 배역을 학급 친구들 중에 찾아서 적고 이유를 쓰세요.

**<등장인물>**

올가, 고양이 무슈, 올가의 엄마, 올가의 아빠, 고블린 플라트(아들),  
고블린 필로르(아빠), 고블린 실비(엄마), 구덩이에 빠진 여자, 고양이 리니트

등장 인물	학급 친구	선택한 이유



읽은 후

나에게 용기란 무엇일까?

3. 《꼭 안으면 들리는》 목차 ‘추위’를 다시 읽고, 다음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행동 했을지 적어 보세요.

얼마나 걸었을까? 올가는 다리가 아팠다. 숲속에 짙은 안개가 끼어 햇빛 한줄기 들어오지 않았다. 카디건을 입었지만 추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무슈의 수염이 얼어붙기 시작했다. 추위를 피해 무슈의 털 속으로 파고든 고블린도 부들부들 떨었다. 눈이 내렸다. 땅에 떨어진 나뭇잎들이 얼어서 유리 조각처럼 반짝거렸다.  
(중략)  
올가는 다시 숲속을 걸었다. 숲에서 울리는 무시무시한 소리는 올가에게 위협이 되지 못했지만, 점점 짙어지는 안개와 추위는 견디기 힘들었다. 올가의 발은 진작부터 얼어붙어 아무 감각이 없었다.

만약 내가 올가였다면

---



---



---



---



---

2. 내가 생각하는 용기에 대해 쓰고,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나에게 용기란 \_\_\_\_\_다.